

朝鮮時代 嶺南班村의 形成과 發展에 關한 研究

李奎成
건축학과

〈요 약〉

朝鮮時代 嶺南地方의 班村은 한국건축 연구의 중요한 자산으로 존재하고 있다. 지금까지 개개의 반촌에 대한 건축학적 조사가 학계에 보고되었으나 이들을 포괄적으로 묶어서 반촌이 형성되게된 원리나 배경에 대해 연구한 예는 거의 없다.

본 논문은 조선시대 역사의 거시적 흐름이 영남지방의 반촌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여 반촌의 형성배경을 밝히고 그 발전양상을 알아보기 위해서 9개의 반촌을 택하여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영남반촌의 형성과 발전배경은 대략 4개시대로 구분할 수 있는데 각 시대에 있어서의 시대정신의 흐름과 반촌의 발전에 관해 연구하였다.

1. 土姓의 성장과 士族化 시대-향반층의 씨족세력이 중앙의 인준을 받아 士族化하며 현재의 동족부락의 모태가 되는 마을에 처족이나 외족의 토지를 물려받아 이주한다.
2. 영남사립파의 등장과 영남학파의 성립시대-영남양반층이 중앙정계에 대거 등장하는 시대로 이때부터 이들은 새로운 학문집단이자 정치세력으로 전국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게되고 鄉里에 더많은 장토를 마련하고 그 마을의 有力氏族으로 번성하게 된다.
3. 四色黨爭 시대-영남양반이 중앙정계에서 失勢하고 향리에 돌아와 지방의 세도가층이되어 경제적, 이념적 지배층으로 군림하며 그들의 근거지인 반촌은 儒學을 실천하고 후학을 교육하며 씨족을 보호하는 동족 마을로 굳어져가게 된다.
4. 세도정치시대-이 시대에 영남사족의 중앙정계진출은 더욱 봉쇄되었고 이들의 지역화, 士豪化는 더욱 강화된다. 이들은 신학문이나 기술의 도입 등 시대의 요구를 외면하고 동족을 중심으로한 배타적인 반촌 건설에만 더욱 집착하여 반촌은 역사적 유물로서의 기능만 남게 된다.

A study on the Banchon (Aristocrats' villages) of Yongnam area formed in Chosun period

Lee, Kyu-Sung
Dept. of Architecture

〈Abstract〉

Banchon (Aristocrats' villages) in Yongnam area still exist as important assets for the study of Korean traditional architecture. Until now architectural studies of each village have been conducted but the study of whole setting of banchon in Yongnam area to reveal the principle and background of Banchon in their forming and development has not been tried, which is the purpose of this study.

This study aims at analyzing the influence of main-stream Chosun history on the forming and development of Banchon in Yongnam area. For that purpose 9 villages have been selected which have many architectural assets of old times.

These villages were formed and developed as the ruling class in Yongnam area became the members of the central political society of Koryo and Chosun dynasties. They attended the central officialdom by Gwageo (examination for selecting bureaucrats). They moved to the villages where their mothers' or wives' families already thrived and inherited land from mothers' or wives' families. Gradually they became influential aristocrats of the nation and acquired dominant position in their villages.

After clan-struggles among aristocrats of Chosun dynasty Yongnam aristocrats lost influence on the central political society. They came back to the villages and became indigenous ruling class in Yongnam area. And as rich landlords and school owners they developed their villages to Confucious paradises and family bastions.

1. 序 論

1-1. 緒

嶺南地方에는 아직도 많은 傳統的 班村이 남아 있다. 근대화의 추세에 따라 많은 변화가 있었으나 아직도 盛時의 威勢와 風貌를 지닌 마을들을 발견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들을 성립시키게 된 歷史의 배경은 무엇이며 이들의 발전과정은 어떠한가에 대한 의문이 남게 된다.

조선시대에 영남지방은 “人材의 府庫”나 “國家財賦의 源泉”이니 하여 중시되어 왔으며 “朝鮮人材半在嶺南”이라 하였듯이 영남은 8道 가운데 戶口數와 郡縣數가 가장 많아서 人材의 중앙진출이 활발하였고 농업 생산성도 높았다. 영남의 선비들은 家門이나 學統을 기반으로 중앙정계에 진출하였으며 또한 벼슬을 그만두고 落鄕하는 경우에도 本據地인 농촌에 이미 토지와 노비를 기초로 한 경제력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몰락하지 않고 在地士族으로서 儒敎의 생활관을 실천하며 중앙으로의 복귀를 꿈꿀 수 있었다.

조선중기 이후 士禍와 黨爭으로 인하여 영남지방의 南人들은 비록 정권에서는 물러나 있었지만 鄕村社會에서 토지나 노비를 소유한 地主階層으로 공고한 경제적 기반과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

고 있었다. 이들은 주로 村落에 聚居하였으며 시대의 思想과 철학을 品味하며 자급자족적 경제권을 형성하고 있었다. 특히 서원과 서당을 열어 자제교육을 私學으로서 무장시킬 수 있었으며, 자신들의 생활을 정당화시키는 유교적 「이데올로기」를 발전시키고 정교하게 다듬을 수 있었다. 이들의 이데올로기는 小學敎育의 實踐躬行과 朱子家禮에 의한 喪祭의 실현으로 표현되며, 벼슬에 뜻을 버리고 은둔척거하여 後學에 吟風詠月的 詩賦詞章을 가르치는 것으로 樂을 삼았다. 鄕村社會의 지배계층인 이들 유학자들은 실제생활과 거리가 있는 物質輕視의 경향을 그들의 글에서 표현하고 있다. 선비는 모름지기 “財利를 멀리하고 安貧樂道에 머물러야 한다”는 儒學의 윤리와 士大夫의 가치관이 크게 작용하여 그들이 쓴 傳記나 “狀稿文”을 통하여 볼 때 모두가 淸貧한 생활을 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남아 있는 그들의 弟宅이나 재실, 또는 樓亭등의 건축물이나 “分財記” 등의 기록을 볼 때 이들 가문에서는 엄청난 토지와 노비를 소유하고, 집중된 경제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麗末의 권문세족이나 15세기의 훈구파처럼 거대한 농장과 무수한 노비는 소유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최소한 自足할 수 있는 토지와 노비를 소유하면서 안정된 경제생활과 사회적 지위를 누리고 있었다. 문자에 나타나는 士族들의 청빈

한 생활일지라도 士族의 체면을 유지하는 데는 충분한 경제적 基盤 위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일정한 수준의 田, 民을 소유하고 있었다. 朱子家禮대로 관혼상제를 실천하고 宗族과 朋友를 접대하는 이른바 “奉祭祀, 接賓客”을 수행하려면 최소한 일정한 토지와 노비를 소유하고 있어야 했다. 이들은 축적된 경제력을 동원하여 弟宅과 家廟, 精舍, 齋室, 亭子, 書堂, 書院등을 鄉里와 인근에 건축하여 소위 “班村”¹⁾을 건설하였는데, 이들은 차차 同族의 독점적 지위가 보장되는 同族部落으로 發展하였다. 이러한 반촌에 건립된 建築遺溝는 지금에 와서 한국건축사 연구에 중요한 대상이 되고 있다.

嶺南兩班들의 富의 획득과 增殖·集中은 멀리 고려시대까지 推及하여 살펴볼 수 있는데 「世宗實錄地理誌」에 실린 土着勢力이었던 土姓의 진출에서부터 살필 수 있는 것이다. 이들 土姓集團은 麗末鮮初에 걸쳐 중앙의 인준을 거쳐 土族化하였고 유학연구에 몰두하여 학문집단화하였으며 朋黨으로 정치집단화되기도 하였으나 대규모의 토지와 다수의 노비를 지닌 地方土豪의 역할은 500년 이상 계속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조선시대의 班村은 儒學을 궁극의 가치가 있는 이념으로서 연구하되 가능할 때에는 중앙정계에 진출하며, 田畓과 奴婢를 소유하는 농업경제에 기반을 둔 사족들의 근거지로서 그 나름대로 자립적 공동사회라고 할 수 있다. 또한 官學의 쇠퇴기에 사족들은 향리에 書院과 書堂을 설치하여 자녀교육을 자체적으로 해결하였으며 朱子學의 학통을 이어가며 연구하였다. 영남지방의 전통적 반촌은 아직도 우리 주변에서 그 형태를 찾을 있을 뿐 아니라 많은 物的·非物的 요소들을 확인하여 前時代의 사회상을 재구성해 보는 것이 가능하다. 이때 개개 마을의 沿革이나 變遷도 중요하지만 이들을 좀더 광범위하게 결합시키는 構成原理를 찾아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된다.

한국의 전통적 村落에 대하여 여러 마을을 踏査하고 物的 요소들을 실측했던 筆者로서도 막상

이들 영남의 班村들을 일관하게 설명할 수 있는 구성원리들을 推出하여 一般化하려 할 때, 이들의 歷史·社會的 背景을 먼저 살펴보아야 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物的要素들의 파악을 위주로 하는 건축학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 최근에 필자는 歷史學의 成果에 주목하였다. 역사학에서 조선시대 사회상에 대한 많은 연구가 있었고, 특히 영남지방의 士林에 대한 地域史的 연구가 있었다.²⁾

역사적인 照明下에서 영남지방의 이름있는 班村들을 비추어 볼 때 그들이 많은 共通點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되었는데, 한마디로 영남의 반촌은 이 지역에서 形成·發展된 兩班勢力의 動態와 軌를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이지역에서 土姓을 가지고 吏族으로 군림하던 씨족들이 고려말부터 중앙의 관직을 획득하여 士의 신분으로 상승하여 존재하다가 조선조의 성종때부터 사림파로서 중앙정계에 내거 진출하였고, 당쟁시대 이후에는 영남지방에 머물면서 경제적·신분적 우위를 바탕으로 토착세력화하여 유학의 실천, 후학교육, 가문의 번영을 위한 터전으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동족부락을 17세기 이후 건설하게 되는 것이다.

1-2. 研究의 方法과 對象

본 연구의 방법으로는 조선시대 역사의 흐름속에서 영남양반의 근간이 되는 사림의 형성과 발전을 시대별로 파악하고, 사림의 본거지였던 특정 반촌들에서 역사의 흐름에 符應하는 변화를 찾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영남지방 在地士族의 형성과 성장을 시대별로 구분한 다음 이들 시대적 특성을 歷史學의 도움을 빌어 규정해 본다. 또한 이러한 각각의 시대에서의 특징들이 대상이 된 촌락들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살펴본다. 대상이 되는 마을로서는 지금까지 학계에서 발표된 마을단위의 연구보고서들을³⁾ 중심으로 9개를 선정하였다. 이들 마을

- 1) 班村이라 함은 양반마을의 줄임말로써 어떤 氏族이 한 마을에서 同族을 中心으로 취락을 形成하여 다른 씨성들에 對해서 經濟·文化·意思決定 등에서 優越의 地位를 行使하고 있는 마을을 뜻한다. 마을戶口의 構成이 班家로만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가중심마을이라고 부를 수도 있으나(정시춘, 참고문헌 11) 반촌이라는 보통의 명칭을 택하는 것이 무방할 것으로 思料된다.
- 2) 영남지방의 土着勢力에 관하여는 李樹健 教授의 “嶺南士林派의 形成”(영남대학출판부, 1984)을 참고하였다. 이교수 연구에도 한계가 있었는데 17세기 이후 嶺南士族의 動向에 관하여는 앞으로의 연구과제로 남기고 있는 점이다.
- 3) 참고문헌 3~10이 각각의 마을에 대한 현지조사보고서이다. 단계의 경우는 필자가 1989년과 1990년에 걸쳐 현지조사하였다.

의 명칭과 위치 및 優勢 姓氏는 다음과 같다.

1. 河回-慶尙北道 安東郡 豊川面 河回1洞-豊山柳氏
2. 良洞-慶尙北道 慶州郡 江東面 良東里-月城孫氏, 驢江李氏
3. 무섬-慶尙北道 榮豊郡 文殊面 水島里-宣城金氏, 潘南朴氏
4. 宜仁-慶尙北道 安東郡 陶山面 宜村洞-眞城李氏
5. 滾池-慶尙北道 盈徳郡 寧海面 槐市1洞-英陽南氏
6. 묘동-慶尙北道 達成郡 河濱面 묘동-順川朴氏
7. 한계-慶尙北道 星州郡 月恒面 大山洞-星山李氏
- 8.南沙-慶尙南道 山淸郡 丹城面 南沙里-星州李氏 外 5姓氏
9. 丹溪-慶尙南道 山淸郡 新等面 丹溪里-安東權氏, 順天朴氏

嶺南士族의 형성과 발전의 시대구분은 朝鮮時代에 걸쳐 넷으로 구분해 보았는데 이들을 時期別로 보면 다음과 같다.

1. 土姓의 成長과 士族化 시대-고려말엽부터 조선 예종 때 (1469년)까지
2. 嶺南士林派의 등장과 嶺南學派의 성립시대-成宗 즉위 (1469년)부터 明宗 때 (1567년)까지
3. 四色憲爭 시대-宣祖 즉위 (1567년)부터 正祖 때 (1800)까지
4. 勢道政治 시대-순조 즉위 (1800년)부터 조선말까지

2. 嶺南地方 班村의 時代別 特徵

2-1. 土姓의 成長과 士族化 時代

2-1-1. 역사의 흐름⁴⁾

지역적 촌락공동체로서의 “土”와 血線의 씨족 공동체로서의 “姓”의 二重의인 의미를 가진 土姓은 羅末이래 조선초기까지 역대의 지배세력을 산출시키는 공급원이 되었다. 土姓의 형성시기는 대체로 羅末麗初이며 漢姓의 수용과정에서 신라의 王姓 또는 貴族姓이 귀한 성으로 간주되어 토성의 형성과정에서 신라의 성씨가 중심이 되어 보급되었다.

原신라지역인 영남지역은 郡縣수가 많을뿐 아니라 각 邑마다 강력한 씨족집단이 존재하였다.

우리나라 5大姓에 드는 金·李·朴·崔·鄭氏가 모두 신라의 三姓과 六姓에서 나왔으며 이러한 성씨가 分貫·分派作用을 통하여 전국에 확산되어 가게 되었다. 이렇게 형성된 토성은 고려왕조의 발전에 따라 在京官人과 在地勢力으로 분화되어 갔다. 군현의 土姓에서 上京從事하면 중앙의 귀족과 관료가 되었으며 그대로 土着하면 戶長·副戶長 등 鄉吏階層을 형성해 갔다.

土姓의 형성과 진출과정에서 新羅貴姓이 전국에 확산되었다 하더라도 고려중기까지는 중부지방 출신의 토성들이 정계의 주도권을 쥐고 있었다. 이러한 추세는 변하게 되는데 武臣執權을 계기로 많은 귀족들이 기세되고 新進勢力의 공급이 지방에서 있게 되었는데 이때 영남지방의 土姓도 큰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토성집단은 鄉里에서 경제적·사회적 면에서 실질적인 지배층이었으나 중앙의 임명에 의해서 관료가 되어 士族化하기 전에는 지방의 吏族에 머물렀다. 영남지방의 在地吏族이 계속 上京從事하는 과정에 在京 기존세력과 대결하면서 지배세력을 교체하고 또한 새로운 士族으로 등장하였다. 영남지방 토성의 진출현상은 고려후기 이래 일반화되었는데 이에 따라 영남 중소군현의 토성에서 新興士大夫가 배출되었다.

중앙정계에 있어서의 집권세력의 교체와 지방사회의 변모는 다른 면에서 在京官人의 낙향생활과 他地移住도 촉진시키게 되었는데 이들이 영남에 다시 자리잡음에 따라 在地士族化하게 되는 것이다. 吏族에서 士族으로 上昇하는데에는 중앙관직의 획득 여부가 중요시되었던 것이며 이들 士族이 낙향하거나 本貫地에서 사족으로 상승하였을 경우 제지이족에 대해서는 우월적 지위를 갖게 되는 것이다. 사족은 학문과 벼슬인 “官”을, 이족은 행정실무인 “吏事”를 담당하는 데에서 소관직무까지 구분되어 갔다.

2-1-2. 반촌에서의 영향분석

연구대상인 班村을 이러한 시대의 배경을 고려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하회, 양동, 한계, 남사의 4개 마을이 이 시대에 형성되었다. 하회의 豊山柳氏는 安東府의 屬縣인 풍산현의 5개 토성중 하나에서 출발하였다. 柳씨는 여말에 풍산현의

4) 이 시대의 흐름은 “영남사람과의 형성(참고문헌 2)”에 의존하였다.

戶長層에서 恩賜及第하여 品官을 거쳐 15세기 후반에 영남의 대표적인 사림파로 발전하였다. 하회마을의 유씨 入鄉祖는 柳從惠로 이말에 하회로 들어와 살게 되었는데 이 마을에는 그때 기존세력으로 裴씨가 있었다고 한다. 이들은 결혼에 의해 인척관계가 되었고 유씨와 裴씨가 居住한데 이어 양 가문의 女婚가 거주하였고 또 그들의 외손이 함께 거주하게 됨에 따라 하회는 異性雜居村이 되었었다. 麗末이래 사족의 이주배경을 살펴보면 절대다수가 妻家를 따라 옮겼다고 하는데, 거주지를 옮길 때 妻鄉 또는 外鄉을 택한 것은 子女均分相續制가 지켜졌기 때문이다. 유씨는 유종혜의 3代前에 이미 士族으로 상승하였고 언고지(妻鄉·外鄉)를 따른 이사로 하회에 定着하였고 차차 다른 성씨들을 배제하고 17세기 이후 유씨 단독의 同姓部落을 이루게 된다.

양동은 慶州府 토성인 孫氏와 外來士族인 驪江李氏에 의해 번창한 마을인데 이 마을도 하회와 같이 外孫에 의해 승계된 마을이다. 月城孫氏 入鄉祖인 孫昭(1433-1484)는 이 마을 기존세력인 柳氏의 사위로 들어오게 되었고 그의 次子인 愚齋 孫仲暉(1564-1529)은 吏曹判書와 左右參判을 지낸 영남사림파의 중심적 인물이었다. 우재선생의 여동생인 손씨부인은 여강이씨인 蕃에게 출가하여 영남학파의 巨頭인 晦齋 李彥迪을 낳았는데 그의 후손들이 양동에 손씨와 같이 거주하게 되었다. 兩姓을 제외한 기존의 토착세력은 하회의 경우처럼 차차 쇠퇴하였다. 손씨는 이 지방의 토성으로 15세기에 孫士明, 孫旭, 孫昭, 孫仲暉 등 부자 4명이 文科에 급제하여 사족화하였으며, 이씨의 李彥迪家系는 여주 鄉貢進士의 후예로 일찌기 영남에 낙향하였는데 그의 父代에 와서 흥해에서 처가를 따라 경주 良佐洞(양동)에 이주하였고 이언적 이후 사족화하게 된다.

한개마을의 主姓인 星山李氏는 星州牧 토성인 성주이씨의 一派로서 조선초기 牧使公 李友가 이 마을을 개척하였다고 한다. 성산이씨는 성주지방의 토성인 이씨의 일파로 조선전기까지 이쪽에 머물고 있던 일파가 점차 사족으로 성장하면서부터 성산이씨가 된 것으로 추정된다. 입향시에 기존의 在地勢力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이씨 입주후 많은 인물들을 배출하였다.

남사에 맨 먼저 정착한 것은 고려말 晉州牧 토

성인 河氏인데 하씨는 진주지방에 토착하고 있던 이족에서 河崙과 河演 및 河敬後등의 가문이 여말선초에 걸쳐 登科에 의해 사족으로 상승하였으며 남사에서의 세력은 쇠퇴하였다. 그후 약 100년 후 中央의 士族이었던 성주이씨 李淑淳이 落南하여 정착함으로써 남사의 중요성씨가 되었다. 星州牧의 토성이었던 이씨는 성주 龍山里에 살면서 戶長職을 세습해 오다가 李長康의 5자가 登科出仕하면서 在京官人으로 행세하다가 태종(李芳遠)의 정도전숙청사건과 세조때의 단종복위모의사건(1456)의 실패에 의해 중앙정계에서 실세하고 落南했다고 한다. 남사입주후 일족의 많은 인물들이 등과함애 따라 지방사족으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하였다.

남사에는 하씨, 이씨 이외에 밀양박씨, 전주최씨, 연일정씨, 재령이씨 등이 있어 조선말까지는 六姓郡落으로 불리워졌다고 하는데 성주이씨의 세력이 가장 번성하였으며 그 다음이 밀양박씨이다.

상기와 같이 4개의 마을을 살펴볼 때 土姓集團의 존재를 알 수 있으며 이들이 妻鄉이나 外鄉을 따라 着根하는 과정에서 다른 성씨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異性間의 기반확보 競爭이 끝난 마을을 하회, 한개라고 한다면 2개 성씨의 공동지배로 끝난 마을이 양동이며 多姓의 지배로 계속해서 경쟁이 존속하는 마을이 남사라고 할 수 있다.

2-2. 嶺南士林派의 등장과 嶺南學派의 成立時代

2-2-1. 역사의 흐름⑤

15세기 후반 成宗祖(1469-1494)를 기점으로 嶺南士林派가 중앙정계에 등장하게 되는데 그 중심 인물은 金宗直이었다. 그는 성종의 오랜 侍從元老서 奉職하였고 선산과 밀양, 금산에 거주하였다. 사림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칭하는 김종직 일파로서 김진충이던 勳舊派와의 대칭개념이며 圃隱→治隱의 學統을 잇고 주자학적 실천윤리를 강조하던 新進士類로서 처음에는 영남지방 출신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嶺南士林派로 칭한다. 己卯士禍를 치른 다음에는 趙光祖 一派를 士林이라 하였는데 기성관료와 구별되는 선진의 士類란 뜻

5) 이 시대의 흐름도 "영남사림파의 형성(참고문헌 2)"에 의존하였다.

으로 사용되었다.

15세기의 사림파는 훈구파의 집권하에서 성장하여 吉再→김종직으로 이어지는 영남지방의 在地士類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갔는데, 그 계보는 麗末의 왕조개체기에 『不事二君』의 節義를 지켜 재야세력으로 밀려났던 私學派와 15세기 중엽 세조의 등극을 不義로 규정하였던 낙향 및 신진 士類가 주축이 되었다.

士林派는 중앙에 진출하기 전에는 郡縣吏族에서 科擧·添設職·散職을 통해 麗末鮮初에 士族화하였고 자신의 학문적 소양과 文才를 발판으로 출세하였다. 그들은 中小地主로서 생활기반을 농촌에 두었고 비록 한때 상경중사하더라도 마음은 항상 處士의인 취향을 가졌으며 농촌의 실정과 민중의 생활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관직보다는 학문적연구를 더 중시하였고 그들의 官曆도 대개 侍從·文幹·教授之任과 養親을 위한 守領職을 역임하였다. 또한 중앙정계에 투신하더라도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여 권력구조에 깊이 참여하지 않았다. 그들은 “小學”과 “家禮”를 교육과 行身의 기초로 삼아 孝悌를 몸소 실천하고 관혼상제를 『朱子家禮』대로 실행하였다. 15세기에 金宗直→金宏弼→趙光祖인파로 확립되었던 영남사림파는 누차의 士禍로 인해 그때마다 큰 타격을 받았지만 사림파의 지속적인 저변확대는 시대의 진전에 따라 성장하였고 마침내 16세기에 가서는 理氣哲學을 기반으로 하는 嶺南學派를 확립시키게 되었다.

15세기의 영남 사림파를 16세기에 와서 크게 발전시킨 사람은 金安國이었다. 그는 기묘사화 후에도 사림파를 영도해 나가는 위치에 있었으며 李彦迪과 權撥, 李滉 등 후후의 영남학파에 속하는 학자들이 그의 居處에 출입하였다.

따라서 金安國은 15세기의 영남사림파와 16세기의 영남학파를 이어주는 교량역할을 하였다. 16세기 영남학파의 출현의 계열을 보면, 孫昭·孫仲暉의 계열에서 李彦迪이 나오고 權撥·李우·李賢輔의 기반에서 李滉이 나왔으며 鄭汝昌·金宏弼·金駟孫 등의 학문적 전통에서 曹植이 나와서 마침내 이들 학자에 의하여 영남학파가 확립되어 가게 되었다.

2-2-2. 반촌에서의 영향분석

이 시대에 성립된 마을로 묘동을 들 수 있다. 묘동의 주성은 순천박씨로 순천박씨는 신라시대부터 순천지방의 豪族으로 조선초기에는 중앙정계의 중요한 士族이었으나 朴彭年(1417-1456)이 단종 復位事件에 가담함에 따라 三代滅族의 화를 입게 되었다. 입향조 朴壹珊은 박팽년의 손자인데 어머니인 성주이씨가 처가로 피난함에 따라 묘동의 인근인 성주에서 출생하였다. 여기서의 성주이씨는 李希慶의 후손으로서 조선초에 주로 영남지방에 거주하면서 사림파로 활동하였다. 순천박씨는 신라말부터 순천지방의 호족으로 존재하다가 고려때 상경한 중앙의 명문거족 중 하나였다.

박일산은 16세 때에 성종에게 자수하여 敎함을 받고 묘동에 창기하였는데 그 때가 1480년경으로 추측된다. 그는 외가의 많은 재산을 상속하여 묘동에 弟宅을 건설하여 박씨 번성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박일산은 그의 모친 이씨가 부남독녀이 있기 때문에 외조부 李鐵根의 재산을 모두 물려받았다고 하는데, 이때는 17세기 이후와는 달리 養子제도에 의해 동족의 뿌리를 이어가는 관행이 아직 확립되지 않았고 외손봉사가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외손에게 재산이 물려지게 된 것이다.

묘동의 성립에서도 하회나 양동과 같은 마을형성의 패턴(PATTERN)을 찾을 수 있는데, 기존의 사족이 거주하는 마을이나 부근으로, 인근이나 중앙의 우수한 士族이 移入하는 것이다. 이들이 이입하는 주된 이유는 처나 모친에게도 子女均分相續에 의해 재산이 분배되는 관행이 16세기까지는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가 말하는 同族部落으로의 변모는 성리학적 유교사회가 확립되고 嫡長子優位相續과 嫡長子奉祀가 일반화되는 17세기에 시작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묘동 입향조 박일산에 대한 敎色은 이 시대의 시대정신과 無關하지 않으니 文治의 입금인 성종이 세조의 왕위찬탈을 불의로 규정하는 士林派를 등용하게 되었던 것이다. 사림파가 등장하고 영남학파가 성립하는 이 시대에 양동에서는 손소·손중돈·이인적이 유학자로서 활약하였다. 따라서 양동은 대상마을중 가장 먼저 유림의 위세를 떨친 마을이라고 할 수 있다.

2-3. 四色黨爭時代

2-3-1. 역사적 흐름⁶⁾

16세기의 70년대에 新·舊 정치세력의 대립으로 빚어진 東西分黨으로 본격화되기 시작한 黨爭은 대부분 南人黨이었던 영남을 在地基盤으로 한 士族의 지역화를 촉진시켰다. 分黨 초기에는 東人黨이 정계의 주도권을 장악했으나 東人은 다시 南人黨과 北人黨으로 분열하여 임진왜란 중까지 대립이 계속되다가 난이 끝난 후 북인당이 정권을 잡게 되었다. 그러나 인조반정이 성공하게 되어 서인당이 주로 집권하였고 숙종시대에는 남인당이 서인당을 숙청하고 잠시 집권하였으나 서인당에게 다시 정권을 빼앗기게 된다. 이후 남인당의 대부분은 執權圈에서 탈락되고 말았다. 서인당은 老論黨과 少論黨으로 나뉘어 교차적으로 집권하다가 영·정조시대에 蕩平策으로 당쟁이 잠시 주춤하였으나 노론당은 다시 시파당과 벽파당으로 나뉘어 당쟁을 계속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색당쟁은 19세기초 안동김씨의 세도정권이 성립될 때까지 계속되었는데 64년간 지속된 이 세도정권은 노론당의 정권이었다.

중앙정계에서의 失勢에 따라 영남을 기반으로 하는 많은 사족들이 낙향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들은 이미 본관지나 처가지에 田地를 확보하고 있었으므로 선비로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고 이미 확립해 놓은 사족의 신분으로서 이념적·경제적으로 지배층이 되어 土班化 내지는 地域化하게 되었다. 이들 영남의 양반층은 정권에서 疎外되었으나 儒學의 연구와 학습을 통하여 학계를 주도하려 하였고 前시대의 사림파가 그랬던 것처럼 우수한 文章과 청렴한 기질로 중앙정계로의 진출을 호시탐탐 엿보게 되었다. 사색당쟁시대 중에도 英祖의 蕩平策의 例처럼 영남선비가 중앙관직에 등용되는 경우도 있었으나 그 수는 많지 못하였다. 지역에 정착한 이들은 동족마을을 建設하고 洞案이나 鄉約을 통하여 지역사회나 문중을 더욱 결속시키려는 노력을 하는 동시에 후진양성을 위하여 서원을 설립하게 되었다.

2-3-2. 반촌에서의 영향분석

무섬, 호지, 의인, 단계 네 마을에서 이 시대

에 지금의 主姓氏가 入鄉하였는데 무섬의 開基는 하회나 양동 또는 묘동과 그 시조의 패턴이 유사하다. 즉 妻族에 의한 제2성씨의 입향이 있게 되는 것이다. 이 마을의 개척은 18세기 초경 潘南朴氏인 박수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 그는 강진너인 머림마을에서 들어왔다고 한다. 潘南박씨는 호남의 토성이었는데 고려시대에 이미 중앙에서 사족화하였다가 그 일파가 영주지방으로 낙남한 것으로 보인다. 박수는 孫婿인 金蠶를 불러들여 같은 마을에서 살도록 한 결과 김대는 宣城金氏의 무섬 입향조가 되었다. 현재는 김씨의 勢가 우세하고 주택들의 규모도 박씨에 비해 우세한 편이다.

宣成은 禮安의 옛이름으로, 선성김씨는 예안의 토성으로 어말에 사족으로 성장하였고 15, 6세기에 문과급제자 9명을 배출시켰는데 이들은 대개 영남사림파의 계보에 속하며 그들의 거주지는 안동, 영천, 풍기였다고 한다. 따라서 김대는 영천의 三判書古宅에서 출생하였다. 김대(1732-1809)는 부모의 뜻을 따라 과거를 보러 가다가 뜻을 돌려 林泉에 돌아와 修身齊家에 힘썼다고 하는데 이것은 영남선비의 한 유형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官路를 사양하고 鄉里에서 선비로서 유학연구와 후진양성에 힘쓰는 경향이라 하겠다. 그러나 이 시대의 역사적 흐름을 볼 때 중앙정계가 사색당쟁에 휩쓸려 있어 한 영남선비가 관로를 지향하는 입지를 세웠다 하더라도 출세의 가능성은 매우 희박했다고 볼 수 있다.

호지마을에 英陽南氏가 입향한 것은 1630년대 南斗遠부터라고 하는데 이때 그는 창수면 인천동에서 移住해 왔다고 한다. 이때 이 마을에는 고려 때부터 이미 여러 토착씨족이 존재하고 있었다고 한다. 영양남씨는 寧海府의 屬縣인 영양의 土姓인데, 남씨는 조선시대에 영해·안동 등 경북일대에 분포되어 영남사림파에 드는 인사가 많았다. 또한 남씨는 上京官人보다는 주로 在地士族으로 행세하였다.

의인의 주성씨는 麗末 眞寶縣의 토성인 眞城李氏로서 退溪 이황의 몇대 위에서 예안지방으로 이주하였다. 이씨는 여말에 이석이 縣吏에서 사족으로 성장하였고 그의 아들 李子攸가 戰功으로 松安君에 봉해지면서 사족의 지위를 확립하였다.

6) 이 시대의 흐름에 대하여는 강만길교수의 한국근대사(참고문헌 1)에 의존하였고 서원제도에 관하여는 이기백교수의 "韓國史新論(일조각, 1985)"을 참고하였다.

退溪는 진성이씨의 7세(李頤의 6代孫)인데 그의 손자가 셋 있었다. 그중 둘째인 純道가 의인에 정착하여 동족부락을 이루게 되었다고 하며 그 시기는 대략 1630년경으로 생각된다. 퇴계의 후손으로서 이들의 위세는 대단하였으며 특히 퇴계가 주자학의 철학을 완성시킨 인물이었기 때문에 학문을 選好하는 시대정신에 따라 진성이씨는 영남의 士族으로 그 명성이 자못 높았다.

단계에 안동권씨가 입향한 것은 1580년경 權濤에 의해서인데 그는 동네의 세력자인 진양유씨의 사위로서 登科하여 권씨가분을 변성시켰다. 안동권씨는 안동의 대표적 토성으로 고려때부터 사족화하여 上京從士하는 일파가 많았는데 이 중에는 낙향생활하는 자도 많았다. 따라서 안동권씨는 京鄕에 분포되었고 특히 영남지방에는 안동을 중심으로 列邑에 확산되었다. 그후 약 100년후 순천박씨의 입향자인 朴尙梯 역시 권씨의 사위로서 입향하여 단계는 이들 兩姓의 후손들에 의해 지금까지 二姓共存의 반촌으로 발전하였다.

이 시기에 書院의 건립이 성행하기 시작하는데 단순한 교육만을 받은 私學의 書齋는 고려말부터 있었으나, 先賢을 봉사하는 祠墓를 겸한 서원은 이때에 비롯되었다. 士禍에 의하여 탄압을 받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활로를 개척해 주고 성장의 터전을 마련해 준 것이 서원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반촌이나 인근에 서원이 세워지는 것은 당연한 추세였다.

퇴계의 후손들과 儒林은 1574년 의인마을의 강건너편에 퇴계가 강학하던 서당을 모체로 하여 도산서원을 건립하였는데 이는 최초의 서원인 紹修書院보다 31년간의 시차를 두고 건립된 것이다. 소수서원은 白雲洞書院이라는 명칭으로 존재하다가 이황이 풍기군수 부임시 조정에 건의하여 왕의 친필로 紹修書院이라는 額을 下賜받으니 소위 賜額書院의 시초였다.⁷⁾

양동에는 1572년 인근에 옥산서원이 건립되고, 하회에는 1613년에 명산서원이 건립되었다. 묘동에는 1691년 洛賓書院이 건립되며 단계에는 17세기에 完溪書院이 세워졌다.

서원과 함께 지방에 있어서 士林의 지위를 굳

게하여 준 것이 鄉約이었다. 향약은 종종 14년(1519)에 조광조가 실시하려 하였으나 그의 失脚으로 성공하지 못하였다. 그후 신조 때에 전국적으로 널리 전국적으로 시행되기에 이르렀는데 이 향약의 간부인 約正 등에는 지방의 유력한 사림이 임명되었고 일반 농민은 이에 자동적으로 포함되었다. 그 결과로 사림들은 농민에 대하여 중앙에서 임명된 지방관들보다 오히려 더 강한 지배력을 가지고 그들의 사회적 지반을 강화하였다.

한편 반촌의 위치를 보면 지방관의 주체소인 郡治나 縣治에서 어느정도 거리가 떨어진 곳에 마을이 자리잡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이것은 사람세력의 경제적 기반이 농장에 있어 도시적 입지를 필요로 하지 않는 집과 지방관아와 촌락이 떨어짐으로 해서 사람세력이 지방수령의 직접적 간섭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2-4. 勢導政治時代

2-4-1. 역사적 흐름⁸⁾

조선왕조 후기의 兩班支配層 사회는 그 자체가 閹閹化 과정을 걸으면서 민중세계의 심한 도전을 받고 있었다. 민중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 대동법·균역법의 실시가 있었으며 실학자들에 의한 지배체제의 모순성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또한 진보적인 사상가들이 스스로 천주교를 수입해 오는 등 保守勢力의 정치적 기반에 위협을 가할 勢力이 형성되고 있었다. 이와 같은 도전에 불만해진 보수적 정치세력은 순조의 즉위를 계기로 정권을 완전히 장악했고, 이때부터 당쟁시대와 같은 벌벌정치를 청산하고 집권자의 가문만이 정권을 독점하는 세도정권이 형성되었다.

안동김씨 세도정권은 金祖淳이 시작하였다. 그는 본래 시파당에 속했으나 정권을 잡은 뒤에는 권력을 그 일문에 집중시키고 정부의 요직을 독차지했다. 그후 安金政權은 金祖淳→金左根→金炳冀로 세도가 계승되게 된다. 王權을 정권으로부터 排除시킨 세도정권은 정치적 견제세력이 없는 조건 아래서 반역사성을 들어내어 三政紊亂으

7) 사액서원에는 국가에서 서적·토지·노비 등을 주는 것이 하나의 상례와 같이 되어있어 고려시대의 書院이 가지는 것과 같은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는데 그 주인공은 士林이었다.

8) 남사에서 의 향약이라 할 수 있는 동약이 실시된 것은 1682년으로 조사되었는데, 대성마을에서의 향약관계 조사는 아직 본격적으로 실행하지 못 하였다.

9) 이 시대의 흐름에 대하여는 강만길교수의 한국근대사(참고문헌 1)에 의존하였다.

로 표현되는 민중에 대한 收奪政策이 절정에 이르렀다.

19세기 중엽 이후 전국적인 民亂이 폭발하게 됨에 따라 안동김씨 세도정권은 더이상 유지되지 못하고 대신 대원군의 세도정권이 들어서게 되었다.

대원군은 1871년 전국의 서원을 47개소만 남기고 모두 철폐시켜 유럽세력에 타격을 가하였다. 당시의 서원은 막대한 농장과 노비를 소유하고 免稅와 免役의 특권을 누리며 국가의 경제를 침식하고 있었다. 서원은 경제적으로 뿐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국가의 통제를 벗어난 존재로서 지방에서 권세를 부리고 있었다.

세도정권하에서 영남의 士族들에게는 중앙정계에 진출하는 것이 前 시대보다 더욱 봉쇄되었고 이들의 地域化, 土豪化는 더욱 강해지고 되었다. 身分制度의 혼란으로 말미암아 양반층의 숫자가 대폭 증가했는데 이것은 세도정권의 매판매적에 의해 더욱 가속화하였다. 전통적 영남사족과 신흥양반과는 신분상의 차별보다는 경제력의 차이가 우열을 가리는 중요한 평가기준이 되었다. 이 시기에 소위 富農居住層이 생기게 되는데 이들도 지역화하여 群居하였으나 士族에서 출발한 전통적 양반의 실력을 억누를 정도까지 성장하지는 못하였다. 전통적 士族은 이미 획득한 명예와 재부를 바탕으로 경제적으로도 僥位에 설 수 있었는데, 이들은 이러한 우월적 지위를 바탕으로 下級의 관직에 취임하거나 鄕村教育을 책임지는 등 신흥양반과는 다른 행동양식을 취하였다. 세도정권 하에서의 영남사족은 각각의 근거지에서 그 지방의 土着勢力으로서 固着化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1910년 日帝가 한국을 强占하는 시기까지 계속되었다. 이 시대에 있어서 중앙의 세도정권에 抵抗하는 민중세력은 급속히 성장하여 동학혁명으로까지 발전되지만 토지를 기반으로 하는 양반들의 주거지인 班村에서는 이미 硬直된 사상이 유학을 놓지 못하고 계속 연구하였다.

2-4-2. 반촌에서의 영향분석

이 시대의 유학자로서 한개의 寒洲 李震相(1818-1885)을 들 수 있다. 그는 숙부인 李源祚에게 수학하였으며 주자학에 몰두하여 理學綜要 10권, 四禮輯要 9권, 寒洲集 22권, 求志錄 60권

을 남긴 大儒學者였다. 그가 태어나 머물던 곳은 한개의 한주종택(李海錫氏 家)인데 그가 이 집을 1866년에 重修했다고 한다. 이 집의 특징은 사람채를 갖춘 위에 한주정사라고 하는 정자 겸 서실을 갖추고 있는 집인데 넓은 정원과 연못, 怪石 등을 볼 때 지방에 固着한 士族들의 풍부한 경제력을 엿볼 수 있다.

한주종택보다 더욱 풍부한 경제력에 의해서 지어진 집이 묘동의 박병규씨 가옥이다. 이 집은 1828년경부터 1911년에 걸쳐 몇차례 부분적으로 중건되어 왔는데 넓은 대지위에 8동이나 되는 건물로 이루어졌다. 넓직한 사람채를 갖추고 있을 뿐아니라, 벌도로 정자를 짓고 커다란 연못을 파서 가히 조선후기 반가건축의 압권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초가지붕으로 된 중문채이다. 김주인의 소박한 생활을 과시하기 위한 의도로 보여지는데 청렴이라는 유교의 德目이 假飾的으로 나타난 例라고 할 수 있다.

호지마을의 특징은 口字形 주택이 건축의 주종을 이루고 있는 집인데, 조사에 의하면 이들은 班家들은 1880년 경에 대부분 지어진 것으로 되어 있다. 이때의 시기로 보면 병자수호조약(1876년)이 맺어진지 몇년 안되는 해로서 국가전체가 內憂外患에 시달리던 시기이다. 따라서 막대한 경제력이 投入되는 주택건축이 활발했던 이유가 일견 발견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미 지역에 固着된 양반층은 역사흐름의 대세와는 역동적으로 연결되지 못하였고 자신들의 계획에 의해서, 축적된 富를 이용하여 第宅의 건축이나 田地의 개간, 精舍의 신축 등을 진행해 나갔던 것이다.

호지마을의 주택건립시기와 비슷한 때에 단계에도 많은 제택이 건설되는데 그 배경은 호지마을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즉, 풍부한 경제력에 의한 일족의 번영터전을 일구는 것이었다.

한개마을의 특징은 조선후기와 일제기까지 재실이 5개소나 건립된 것인데 이 시대의 흐름을 나타내는 또 하나의 경향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제실의 기능을 보면 조상을 기념하는 건물로서 門中 各派의 제사 때 타지에서 온 一家들이 묵기도 하며 평상시에는 아동들의 講學場所, 詩會의 場所나 年長者들의 담화장소로 이용되는 곳이다. 이렇게 재실이 여러 개 건축되는 이유는 이 마을에 같은 성산이씨 동족들이 거주하지만 여러 대를 내려오는 동안 이미 寸數가 멀어지게

됨에 따라 각파는 파별로 중시조를 내세우게 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각파의 派始祖나 훌륭한 유학자를 기리는 상징적 건축물이 필요하게 되어 剩餘建築이라고도 볼 수 있는 재실이 건립되는 것이다. 동족마을의 형성배경이 17세기에 성립되었고 시대를 지남에 따라 동족의 分化過程을 볼 수 있는 한 예라고 하겠다.

서원철폐령에 따라 서원들이 폐쇄됨에 따라 묘동의 낙민서원과 단계의 완계서원이 이 시기에 철폐되었다. 그러나 이들은 유럽에 의해 서당으로 개조되고 계속해서 유럽의 집합소가 되어 上疎와 후학교육의 장소로 이용되었다. 또한 후학교육을 위한 장소로 남사에는 草浦精舍와 巴東書堂이 세워졌다. 서원이 지역 유럽들의 교육 및 여론수렴장소로 광범위한 양반층에 의해 이용된 데 비해 서당이나 정사는 씨족문중의 교육을 위한 좁은 범위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교육장소라고 할 수 있다.

3. 結 論

지금까지 정치·경제의 변동에 따른 영남지방 士族들의 變遷에 대해 4개시대로 구분하여 각각의 특성을 살펴보고 각 시대마다 建築學的 조사가 이루어졌던 班村들의 성립배경과 시대적 位像을 살펴보았다.

영남지방의 반촌들이 성립하게 된 배경은 이 지방 土姓의 성장에서 찾을 수 있는데 이들은 고려말부터 지방의 史族으로 토착세력으로 존재하다가 여말선초에 사족화하였고 성종시대부터 士林派로서 중앙정계에 신선하고도 극적으로 등장하여 名門家로 변모하였고, 登用に 따른 관료생활과 함께 경제력을 증대시켰다. 四色黨爭시대부터 중앙으로의 진출이 여의치 않게 됨에 따라 이들은 자기들의 牙城인 영남의 班村으로 돌아와서 선비문화를 발전시켰다. 따라서 이들의 본거지 마을은 동족부락으로 발전되게 된다. 近畿地方의 南人黨에 속했던 선비들이 갈 곳이 없어 정계에서 소외된 후 실학자로 변모한 것과는 대조적이라고 할 수 있다.

영남의 반촌은 영남유럽의 생산지였고 그들이

떠나지 않고 공자의 가르침을 실행하는 중요한 장소였다. 남사의 경우 선비들이 이곳을 孔子의 탄생이나 성장과 관련시키기 위해 尼丘山과 泗水라는 명칭을 붙인 데에서 이러한 점을 엿볼 수 있다.

班村의 양반들은 조선시대의 전기간에 걸쳐서 경제적 축적을 계속하였고 차차 중앙과 멀어지는 고정적 土着勢力으로 변모하였는데 17세기 이후부터 동족적 결합력이 강한 村落으로 변화해 갔다. 중앙과 관련을 맺지 못하였다고 하여 이들이 在地基盤을 막달당한 것은 아니었으며 낙향했을 지라도 지방의 支配勢力으로 위세를 維持하였으며 끊이지 않는 건축활동을 통하여 지금의 유수한 반촌들을 건설하였다.

하회, 양동, 무섬, 묘동과 단계의 경우에는 마을형성의 방법이 동일한데, 처가나 외가의 재산을 相續받기 위해서 他族이 移入하였으며 그후 세력을 키운 他族은 기존의 세력과 대등하게 되거나 능가하게 되었다.¹⁰⁾ 호지, 한계, 남사의 경우도 이미 在地勢力이 있었으므로 보아 비슷한 경위에 의해 지금의 우세성씨들이 입촌하였을 것으로 추정은 되나 더욱 연구가 필요하다.

동족부락의 형성에 있어서는 우세성씨의 구성에 따라 남사와 같은 多姓村, 양동·무섬·단계와 같은 二姓村, 하회·의인·호지·묘동·한계와 같은 單姓村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마을내부에서는 씨족간이나 씨족의 계파간에 선의의 치열한 경쟁이 존재하였다. 경쟁의 목표는 중앙관직의 획득을 위한 과거급제, 우수한 유학자의 배출, 경제력의 함양 등이라고 할 수 있다.

반촌들의 위치는 縣治나 郡治의 邑城에서 상당히 떨어진 곳에 있었는데 이것은 지방수령의 간섭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농장개설에 유리하기 때문이었다.

10) 의인의 경우는 진성이씨의 세력권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황무지의 개간에 의해서 주변의 사족이 생활터전을 넓혀간 예라고 할 수 있다.

參 考 文 獻

- 1) 강만길, 한국근대사, 창작과 비평사, 1984.
- 2) 李樹健, 嶺南士林派의 形成, 영남대 출판부, 1979.
- 3) 張起仁 外, 양동마을 조사보고서, 경상북도, 1979.
- 4) 張起仁 外, 하회마을 조사보고서, 경상북도, 1979.
- 5) 울산공과대학 건축학과, 안동댐 수몰지구 취락형태 현지조사, 1976.
- 6) 울산공과대학 건축학과, 전통취락 실측조사연구(남사), 1983.
- 7) 울산대학교 건축학과, 전통취락 실측조사연구(묘동), 1987.
- 8) 金一鎭 外, 전통건조물보존지구 조사보고서(한개마을), 문화재관리국, 1988.
- 9) 金一鎭 外, 전통건조물보존지구 조사보고서(무섬마을), 문화재관리국, 1988.
- 10) 金鴻植 外, 전통건조물보존지구 조사보고서(호지마을), 문화재관리국, 1988.
- 11) 鄭是春, 朝鮮時代 班家中心마을의 空間特性에 關한 研究, 서울시립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9.